

# 대한양계협회소식



## 2006년도 제 2회 이사회 개최 의결사항 원안대로 통과



지난 4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2회 이사회'가 참석 23명, 위임 15명, 총 38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의결사항으로는 '당진육계지부 설치승인(안)', '임원협찬비 협조(안)', '제규정 개정(안)[여비, 직제, 예산회계] 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전차 회의보고에서는 부의안전 심의결과로 △2005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과 200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에서 원안대로 접수 승인, △안성 검정소부지 처분(안) 심의에서 원안 중 「부지매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한다」를 "9인 소위원회와 협회회장단에게

위임한다"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접수·승인, △2005 양계산업발전 유공포상대상자 선정(안) 심의에서는 동양연 지부에서 추천한 최영식 사장 1명을 추가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긴급발의 사항으로 △회비인상건, △육계사육비 현실화(환원), △산란계자조금 거출 적극 동참건에 대한 사항들이 제시되어 다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회비인상건은 현 물가에 맞게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지부·지회장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며, 육계사육비 현실화(환원)건은 육계분과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여 의견을 모아 진행토록 했다.

이외에 기타토의 사항에서는 한미 FTA 파장 분석과 친환경 축산정책활성화 방안 등 협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강구와 지도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종계·육계위원 소모임 개최 정기적 모임 갖기로 합의

지난 4일 종계·육계위원 소모임이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초부터 각 분과위원회



에서 거론된 불량병아리 문제 등 서로의 합일점을 찾고자 대화의 장이 열렸다. 난계대 질병이 병아리를 공급받은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부화장에서는 병아리 실명박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육계사육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량병아리 신고센터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여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계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합의할 것이며, 앞으로 육계인들과 종계인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당면현안 등 예민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종계D/B사업 출장자 회의 출장자 교육강화



지난 27일 본회의회의실에서는 종계DB사업 출장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계D/B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을 논하는 자리로 출장 준비물, 준비사항, 종계장 방문시 행동요령 교육 등 보다 정확한 종계D/B사업 진행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종계DB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1~4차까지의 조사일령 기간을 변경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종계장 방문시 농가 선물증정에 관해서는 농가교육비 예산내에서 집행하기로 하였고 선물에 삽입될 문구는 “대한양계협회·가금수급안정위원회”로 결정했으며 논의가 더 이루어진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 종계DB사업의 진행방향 토의에서는 종계업 실태조사표와 계사별 종계사육현황 조사표를 일부 개정하여 그동안 문제되었던 점들을 보완하였다.

### 채란분과위원회 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지난 5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본회 및 업계에서 일부 산란종계품종의 빠른 수입재개를 요청했었지만 어려움이 따른다는 정부의 입장에 종계 경제주령

을 70주령으로 감축한 부분에 대해 일부 경제주령을 연장시키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달걀소비촉진운동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란계임의자조금은 납부한 농가에 대한 감사표시를 전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회·지부에서는 농가에 자조금의 기대효과, 간접효과를 인식시켜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타사항으로 한·미FTA협상의 체결에 앞서 이에 따른 국내 산란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해 충분한 개선점을 모색하여 정부에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검정위원회

#### 달걀경제능력검정소 이전사업 논의



지난 27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 75회 육용검정계 최종성적과 제 39회 산란검정계 중간성적 심의 및 평가를 가졌다. 전용육용계 검정계군에 비해 준용육용계(재래닭)의 출하일이 약 5주 정도가 늦은 것을 고려해 검정은 같은 시기에 실시하되, 검정기간은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 검정소 이전 사업과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보고와 이전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매각추진 및 검정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외부용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검정성적 167쪽 참조)

### 계란수급동향 논의 제주도 지역과 충분한 의견교환



지난 13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강승협 제주지회 상무,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 운영위원장, 이덕선 전국계우회연합회 난가정보위원장, 본회 이보균 경영지도팀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계란수급동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7월초 제주도 계란이 수도권지역으로 덤핑판매 된다는 소문이 계기가 되어 이번 자리에서는 제주도 계란이 경남지역에서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계란의 경우 운임료 고려 등 서울난가보다 1~2원 정도의 D/C가 더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가격덤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인자리에서 제주도 산란계 사육현황과, 계란판매 기준가격, 원자재 구입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계란유통정보교류 및 계란품질향상 등을 위해 의견을 신속히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강승협 상무는 제주도 지역에서는 지역

내 재고물량 처리와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계란등급제 도입과 액란가공공장 설치 등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한영농조합법인  
본회 직원과 함께 단합대회 가져**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은 지난 7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고골산장에서 본회직원을 초청해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다한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채란업을 하는 젊은 양계인들의 모임으로 사료공동 구매, 질병방역 공동대처 등 이익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월 모임을 갖고 당면 현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해오고 있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다한영농조합법인 회원들과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최근의 한미 FTA 및 자조금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또한 족구대회를 통해 서로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산란계 사양관리 지침서 발간**

본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자로 산란계 사양관

리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국내 정세에 맞게 체계적이며 정리된 지침서가 없어 아쉬움을 느껴 왔었다.

이번 사양관리 지침서는 유한진

저자(우성사료 양계PM, 축산기술사)와 함께 3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다. 4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전반적인 산란계 사양관리를 다루었으며 농장경영, 축사시설, 통계자료, 사양지표, 산란계 관련 업체 연락처 등 사양관리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총 망라해 산란계 필독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였다.

가격은 권당 1,5000원(정가 20,000원)이며 단체구독시(10권이상) 권당 10,000원이며, 본회 (02)588-7651, 홍보팀 장성영)로 문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지부소식)**

**목포채란지부  
현판식 거행**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윤한성)는 지난 11일 전남 무안군 소재 한국양계농협 목포계란직판장에서 광주전남지회 목포채란지부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윤한성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비롯 이영재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윤재섭, 김재균



전 광주전남축협조합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목포채란지부의 탄생을 축하해주었다. 목포채란지부가 설립되면서 광주전남지회는 현재 나주지부, 무안지부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를 두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목포지부는 오랫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1개 시(목포시)와 6개군(강진, 해남, 영암, 무안, 신안, 함평)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채란업계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한미 FTA 등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목포채란지부의 탄생을 계기로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원주채란지부 부부동반 आयु회

원주채란지부(지부장 박영수)는 지난 13일 회원농가 1백여명과 함께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하림가든에서 회원농가 부부동반 आयु회를 가졌다.

박영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농장운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 모두 털어버리고 서로 믿고 협력해 회원 농가 모두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안사현 원주축협장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양계농가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원주지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농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업계의 소식을 전하며 친목을 다졌다.

###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7/3 한국사료협회 창립45주년 기념식
- 7/3 한-미FTA 저지 농대위 대표자회의
- 7/4 본회 제 2회 이사회
- 7/5 대한제당 창립기념행사
- 7/7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긴급 대표자 회의
- 7/7 대한영농조합법인 초청, 직원상조회와의 단합대회
- 7/10 농단협 대표자 오찬모임
- 7/12 한-미FTA 저지 국민 총 결기대회
- 7/18 협회 출입기자 간담회
- 7/18 2006년도 제3차 한국가금학회 임원회의
- 7/19 농업축산발전을 위한 경마세제개선 2차토론회
- 7/21 가축개량목표 설정 심포지엄